



밀수입 생녹용 판매업주 불구속 입건

-뉴산레드디어 생녹용 판매혐의,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듯-

지난달 9일 본회와 부산경찰청 의사수사대의 합동 단속으로 적발된 수입 생녹용 취급업자 김모씨(경남 진주시 칠암동)가 불구속 입건됐다.

본회와 부산경찰청 의사수사대는 경남 진주의 김모씨가 외산녹용을 취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9일 잠복 근무를 통해 외산녹용을 저장하고 있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밝혀내는 한편 당일 외산녹용 판매현장을 덮친 바 있다.

<지난호 현장취재기사 참조>

김씨는 지난해 2월중순부터 자신의 영업소에서 신원미상의 밀수입자로부터 뉴질랜드산 레드디어 생녹용 35kg(933냥)을 구입하여 냉동시설에 저장해 놓고 한약재

로 사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 9일 심장질환, 골다공증, 당뇨병치료에 사용키 위해 생녹용을 구입하려는 ○○○에게 생녹용은 고단백질로 심장질환, 당뇨, 빈혈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라며 약제를 조제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면서 생녹용 219냥을 한약재로 판매했다.

김씨는 향후 약사법 제 74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1항 제 1,2호 및 같은 법(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 2항 및 제 55조(판매 등의 금지) 제 1항 등에 적용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양육**

